



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술직, 대담한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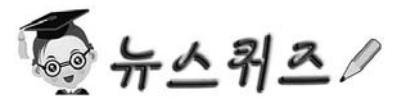
'고래' 잡고 '에이즈'도 잡고

'포경'이라는 말, 어떤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맞을까. 포피가 음경 귀두부를 덮고 있으면 '포경'일까.
많은 독자들이 '포경'으로 알고 있으나 의학적인 의미의
포경은 포피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 상태가 추가된다.

되고 특히 겨울방학 시즌에는 초등생들의 포경
수술로 비뇨기과가 '특수'를 누린다는 보도가 나
올 정도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포경수술은 꼭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많지만 가능한 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포경
수술이 필요하거나 꼭 해야 하는 상황도 많
다.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포피염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
법이 포경수술이라는 것이다.
포경수술을 함으로써 성병의 발생을 크게 줄
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20세기 말 천형으로 알
려졌던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포경수
술을 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 비뇨
기과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을 무작위 선별해 포경수술의 유무에 따라 각각
1천400명씩 나눠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포경
수술이 HIV 감염률을 76%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포경수술이 성병의 유행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포경수술
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몇 살 때 해줘야 좋은지
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신생아거나 유아기에 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
견은 귀두포피염과 음경암의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반면 유아기의 포경수술은 마취의 위험성이
있고 포경수술을 받으면 요도구멍이 노출되어
기저귀를 하는 동안 요도구의 궤양과 협착을 일
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포경수술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
는 사람보다 성적 쾌감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포
경수술이 조루증을 예방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위생적인 이유로 포경수술을 하는 경
우 아이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
를 하고 협조적인 10세 전후가 좋을 것이다.
<전통만비뇨기과 원장>



85.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최근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
원회(IPCC)와 이 사람을 2007년 노벨 평화상의 공동 수
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엘 고어 ②조지 부시
③무하미드 유누스 ④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
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
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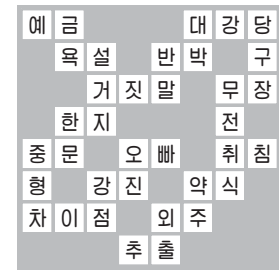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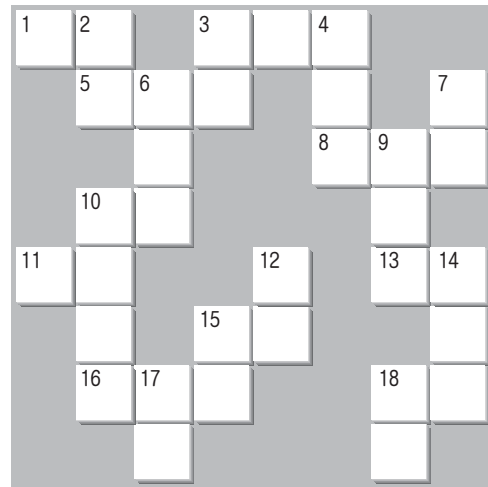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 272 >

→ 가로풀이

- 1. 선거에서 어떤 직위나 신분을 얻으려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나섬. 또는 그런 사람. 3. 비행기를
넣어두거나 정비하는 건물. 5. 가품이나 단수,
화재 등으로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
해 물탱크를 장치한 차. →물차. 8. 같은 목적을 가
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
고 서로 겨루는 맞장수를 이르는 외래어. 10. 군대
의 기강. 중대장이 공석이어서 병사들의 ~가 해
이해졌다. 11. 여름의 기간을 이르는 말. →동계.
13. 사회를 올바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
들이 지켜야 할 일정한 차례나 규칙. 15. 높은 소
리. 그 가수는 노래 부를 때 ~ 처리가 불안정하다.
16. 학문 연구에 대한 정열. 18.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바뀌어 달라짐. →변천.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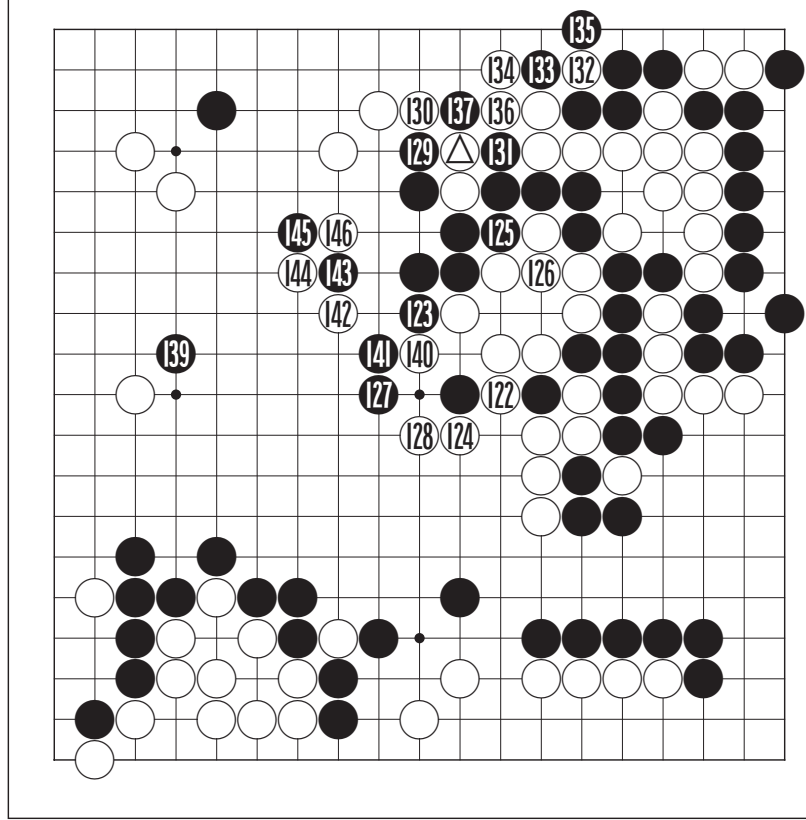
- 2. 물자나 자금 등을 계속해서 대어 줌. 따로 떨
어져 있는 소규모 부대에 매주 한 번씩 필요한 물
자와 식량을 ~하다. 3.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 빈부 ~. 4. 유인원과 하
나. 뒷다리로 서면 키가 2미터, 무게는 280kg 정도
이며 유인원 중 가장 크다. 팔이 길고 다리는 짧으
며, 입이 크고 눈썹이 없다. 과실이나 나무뿌리가
주식이다. 6.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시기. 7. 적
또는 죄 있는 무리를 무력으로써 치는 일. →정도.
9. 두 사람이나 나라 등의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
게 하거나 서로 싸우도록 하는 짓. 10. 닭의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 12. 불규칙하
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14. 서양에서



<함께 풀어봅시다 271회 정답>

- ▲지난주 정답
김준광·광주시 북구 운암동
이혜정·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
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발생해 발달한 그림. 또는 서양에서 보급된 재료
와 기술에 의해 그려진 그림. 15. 몸의 높은 열. 섭
씨 39.6도에서 40.5도 사이의 열을 이른다. 17. 야
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의 위력. 18. 남의 이익을
위해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줌.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



최후의 항전 8보(122~146)
최강부 준결승 1국
우변의 전투에서 흑이 50여 집이 넘는 큰 집을 장만하여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장면이다.
이제는 선계성 6단이 우세를 어떻게 지켜 나가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며 김희관 5단은 이같은 구도를 한시라도 빨리 깨뜨려 역승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계성 6단은 123부터 127로 지켜

바둑소식
배준희-윤준상-김수용, 재격돌
배준희 2단이 지난 12일 서울 스카 이 바둑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 가스배 신에프로 10월전 B조 리그에서 김수진 2단에 250수 만에 백 별 계승을 거뒀다.
배 2단이 승리함으로써 B조에서는 배 2단을 비롯 윤준상 6단, 김수용 2단이 4승1패로 3차 동률이 돼 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동률 재대국을 갖게 됐다.
A조에서도 박승화 2단(4승1패)이 조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허영호 6단(3승1패)-윤소진 3단(2승2패)의 대국 결과에 따라 동률 재대국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대회 최종 우승자는 각 조 리그 1위를 차지한 두 가사의 3번기로 가려진다. /윤영기자 penfoo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9월 5일 壬午)
36년생 이상의 만남도 좋은 계획을 세워라. 48년생 애사가 생길 수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있음. 60년생 부부사이 에예를 지키면 사람은 두 배. 72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면 자신의 노력 부족. 84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
37년생 제일 관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 49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생각. 61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 시작. 73년생 작은 일도 필승의 각오로 추진. 85년생 욕심을 버리는 줄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를 보낸다.
38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지만 끝내는 기쁨이다. 50년생 어부지리도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62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 74년생 애인과 다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이다.
39년생 작은 것 주고 귀중한 것을 취하라. 51년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버리는구나. 63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는 자신이 하라. 75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과 육아 더 중요 하리라.
40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52년생 불연이연 송사가 휘말린다. 64년생 직업을 돈, 남편, 자녀내까지도 조심해야. 76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41년생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라. 53년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라 목 관절이 불편하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나 자만은 하지마라. 77년생 소신적 행동하면 소득이 증가한다.
42년생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54년생 협조자가 나타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6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순한 일이 고통될 수도 있다. 78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하니 대화가 필요하다.
43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55년생 인성은 지금부터, 맺는 것은 시기이니 행동하라. 67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 하라. 79년생 기성전이란 횡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 증가한다.
44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6년생 도회기가 재발하면 망신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8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80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 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45년생 신체적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5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69년생 예상치 못했던 실물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81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46년생 동료를 칭찬하면 공은 내게로 온다. 58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70년생 뜻 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지체롭게 대처하라. 82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
47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59년생 내야 게 불만은 모든가 내 탓으로 생각하라. 71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83년생 공술에 능력이 따르니 파하는 게 상책이다.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11>
How did you spend your last holiday?
당신은 지난 휴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A : How did you spend your last holiday?
B : I went skiing.
A : How was it?
B : It was great. How about you?
A : I stayed home.
B : Why?
A : Because I was sick.
B : That's too bad.
A : 지난 휴일을 어떻게 보냈나요?
B :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A : 어땠어요?
B : 좋았어요. 당신은요?
A :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B : 왜요?
A : 아팠거든요.
B : 안됐군요.
* I went mountain climbing. = 저는 등산을 갔습니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11>
うんざりだ
지겨워, 질렸어
A : 社長(しゃちょう), 文句(もんく)ばかりだね。
B : うんざりだよ。
A : わがままなやつだから。
B : だから嫌(きら)われるんだよ。
A : 사장 말야, 불만만 늘어.
B : 질렸어.
A : 자기만 생각하는 놈이니까.
B :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文句(もんく) : 불평
わがまま : 남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 관한 일만을 중요시 여기며 행동하는 것을 뜻함.
わがままいう : 멋대로 얘기하다
わがままな性格(せいかく) : 제멋대로인 성격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01>
明天给你换新的
내일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A : 你用这张桌了吧?
Nǐ yòng zhè zhāng zhuōzi ba?
나 용 잘 잘 부엌조 바?
B : 是, 可是椅子坏了。
Hǎo, kěshì yǐzi huài le.
하오, 커스, 의조, 허대하 조.
A : 哦, 明天给你换新的吧。
Ō, míngtiān gěi nǐ huàn xīn de ba.
오, 명 :환 의자 나 환한 분 데 바
B : 谢谢, 我期待着。
Xièxiè, wǒ qīdài zhe.
샤샤샤, 워 기다려 바오.
A : 여 책상 사용하시중?
B : 네, 그런데 의자가 고장 났어요.
A : 오, 내일 새것으로 바꿔드릴게요.
B : 고맙습니다, 기대됩니다.
期待 (qīdài) : 기대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628>
聲東擊西(성동격서)
소리성, 동북동, 칠격, 서북서
성동격서(聲東擊西)는 말로는 동쪽을 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병법(兵法)의 한 가지로, 한쪽을 공격할 듯하다가 약삭 빠르게 상대편을 속여 반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쪽으로 쳐들어가 적을 무찌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일종의 거짓 정보로 상대편을 교란시키는 전술(戰術)이다.
유방(劉邦)과 항우(項羽)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위(魏)왕 표(豹)가 항우에게 항복하였다. 유방은 항우와 표가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위협에 처하자 한신(韓信)에게 타계책을 요구하였다. 이 때 위왕은 백직(柏直)을 대장으로 하여 황하(黃河)의 동쪽 포관(蒲坂)에 진을 치고 한나라 군대를 막고 있었다.
한신은 포관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지만, 병사들에게 낮에는 큰 소리로 훈련하도록 하고 밤에는 불을 밝혀 적극적으로 공격준비를 하는 듯이 꾸었다. 백직은 이런 한신의 군대를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한신은 비밀리에 한나라 군대를 이끌고 하양에 이르러 뗏목으로 황하를 건넌 뒤 재빠르게 전진하여 위왕의 후방 본거지(本據地)인 안이(安邑)를 점령하고 표를 사로잡았다.